김재홍 <아리스토텔레스『시학(시작술) 연구>

제9강 플롯의 구성에 대하여

1교시

◆ 플롯의 급전과 발견

▲ 플롯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재정리 - 완결성과 급전

예, 오늘은 11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플롯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극에 있어서 가장 프시케라고 말하는, 정수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플롯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기에 보면 7장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비극이란 완결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전체적인 행동의 모방이다. 그래서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전체적인 어떤 또 행동의 모방**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처음과 중간, 끝은 어떤 사건으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일성과 전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플롯의 사건들, 그 길이는 우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또 10장에 와서 플롯 얘기하면서 10장에서는 단순한 플롯이라는 것하고, 10장에서, 단순한 것과 플롯에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 단순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행복한 상태에서 불행으로 가는 경우, 행에서 불행으로 가는 경우, 주인공의 어떤 운명이, 또 한 가지는 불행했다가 다시 행으로 가는 경우. 이게 이제 단순한 플롯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플롯은 플롯이라는 건 사건의 배열, 배치, 사건들의 결합이니까, 주인공의 운명이 불행한 상태에서, 불행에서 unhappy에서 happy한 것으로 나가다가 행으로 가다가 다시 불행으로 가는 것, 또 다음 경우는 행에서, 행에서 행복했다가 불행으로 갔다가 unhappy한 것으로 갔다가 다시 행으로 가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변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급전이라고, 번역에서는 급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페리페테이아**(peripeteia)라고 하는 것,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앎,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라고 하는 것**, 우리 책에서는 discovery, 발견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려면 뭔가 어떠한 전환점이 있어야 되죠. **터닝포인트**. 그 터닝포인트에서 급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급격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어떤 뭔가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대개 그건 인물의 발견인데) 어떤 주인공의 내면의 자의식.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사실들, 특히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인물이, 어떤 사실이 등장해가지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급전이

www.artnstudy.com

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아나그노리시스라고 하는, 앎. 우리 책에는 발견으로 번역한 앎이 동반되어야지 된다는 측면. 그래야 3번과 4번과 같은 복잡한, 콤플렉스 플롯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만 있고, 제13장에 가면 이 복합컴플렉스, 3번과 4번이 같은 것이 또 여러 가지로 다시 불행한 상태에서 다시 행복함으로 가고 또 행복한 상태에서 다시 불행으로 가고 이게 연속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변형의 형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13장에 가서 주로 하는데 마지막에서 어떤 복잡한 플롯들이 어떤 혼합되고 또 어떤 행위자의 성격 때문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이러한 급전이 일어날 때 갑자기 왜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사건과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1에서부터 n까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 사건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바, 개연성과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 1과 2와 3과 4가 일어날 때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 사건들이 어떤 개연성과 필연성의 관계를 가지고 긴밀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게 플롯의 중요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성, 전체성 이런 걸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선행사건의, 마지막 대목에서, 선행사건의 필연적 또는 개연적 결과라야 한다. 엑스 아낭케(ex angke), 카타토 에이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낭케라고 하는 것하고 카타토, 뭔가 그럴듯함. 에이코스(To eikos)라는 말을 개연성으로 번역했고 이천병희 선생님 번역에 의하면 또 이 아낭케스라는 것, 엑스 아낭케스라는 것. 이건 필연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필연으로부터 이런 뜻인데 이 아낭케, 필연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 2와 3과 사건의 결합이 뭔가 그럴듯하면서 거기 어쩔 수 없이 1이라는 사건의 원인에서 2가 발생하고, 2라는 사건에 의해서 3이 발생하고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10장에서 말했습니다.

▲ 급전 : 『오이디푸스 왕』의 예

오늘 11장에서 드디어 그러면 이제 급전이라고 하는 것, 페리페테이아가 왜 일어나느냐. 또 페리페테이아가 뭐냐 하는 대목이 1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태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라는 것은 개연적, 또는 필연적 인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하는 얘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예가 바로 오이디푸스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신탁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을 타고 났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코린토, 코린토스를 떠나서 테베로 갔는데 오히려 테베로 가는 삼거리에서 라이오슨데 자기 아버진줄 모르고 죽이고 어머닌줄 모르고 결혼하고 테베의 왕이 되고 자식을 넷씩이나 낳고 그랬어요. 그 경우에 행복했죠. 행복했는데 뭔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친에 대한 살인에 대한 공포, 또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모친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고린도에 있는 자기가 친아버지, 친어머닌 줄 알았던 그 왕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 가져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행복한 상

www.artnstudy.com

태에서 그것을 알게 됨으로, 그것이 오히려 그 자기가 그런 신탁으로 벗어나게 된 것을 알고자 했는데 그 놈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죠. 거기에 뭔가 급전이 일어납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앎을 동반하게 되죠. 예,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오이디푸스의 라이오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기 어머니, 생모였던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고 네 명의 자녀를 낳고 이런 행복한 것을 살다가 어떠한 그 급격한 변화, 자기 주인공이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불운복합플롯과 행운복합플롯

이런걸 보고 일종의 주인공의 운명이 해피한 상태에서 언해피로 빠지는 것은 일종의 불운콤플렉스다. fatal complex, 아니, fatal plot 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플롯이 fatal plot 인데, 그것은 이제 행복한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fatal complex 불운 복합플롯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이디푸스에서 다시 말해서 그 11장에 어떤 그 사자가 오이디푸스를 기쁘게 해주고 그를 모친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줄 목적으로 왔지만, 그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게 바로 불운콤플렉스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fatal complex plot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게 『륑케우스』의 예를 들고 있는데 륑케우스가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가다가 다나오스는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던 도중 이에 선행했던 사건의 결과로 오히려 후자는 죽고 전자는 구출되는 것, 이것은 지금과는 정 반대죠. 오히려 처형을 마치 춘향전의 경우와 같이 마치 춘향이가 죽을 뻔, 변사또에게 죽을 뻔하다가 이몽룡이가 등장해서 거꾸로 변사또가 오히려 불행한 상태로 빠지고 또 춘향이는 어떤 그 행운을 얻게 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바꾸게 되죠. 이건 fortune complex plot 이라고 행운복합플롯, 불운복합플롯에 대해서 행운복합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급전 : 『륑케우스』의 예

두 번째 예는. 그러니까 11장의 『륑케우스』의 그러니까 앞의 오이디푸스 경우는 불운복합플롯이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신탁으로 벗어나서 본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기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불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불운복합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행운. 럭키한 경운데 륑케우스 경우는 우리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오히려 앞의 어떤 사건의 경우로 구원을 당하는 경우. 그것은 행운 복합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그 주인공의 운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페리페테이아, 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급전이라는 것도 우리 67쪽에 『륑키우스』란 작품은 남아있지 않는데, 작품은 남아있지 않는데 전설에 의하면 아주 유명한 각주에 나오고 있지만은 아이귑토스와 다나오스 형제간에 아이귑토스는 오십 명 아들 두고 다나오스 오십 명 딸을 둬서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나오스가 형제간이지만 자기가 싫어서 딸들한테 결혼시키지 말라 그래서 첫날밤에 상대를 다 죽여라. 아버지 명이죠. 아버지 명령. 그러나 한사람만이 자기 상대에게 륑키우스를 죽이지 않고 도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아바라는

www.artnstudy.com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발각됨으로써 그러한 비밀이 밝혀지게 되고 륑케우스는 체포되고 바로 륑케우스가 처형되는 순간에 다나오스라는 왕이 너무 폭군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아르고스 신이 다나오스가 통치하던 아르고스 시민들이 오히려 정의의 이름으로 륑케우스를 구출하고 다나오스를 죽이게 되는 것. 마치 춘향전과 같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런 것은 그 행운복합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일종의 단순한 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좋은 비극의 급전은 앎을 동반해야한다

지금 륑케우스의 경우에 륑케우스 경우는 단순한 급전, 심플한 페리페테이아, 단순급전. 왜냐면 왜 단순급전이라고 말하냐면 륑케우스의 운명이 바뀌는 것에 관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아나그노리시스를 동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령 우리 전자의 오이디푸스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죽였던 자기가 테베 삼거리에서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고 오히려 고린도에 있던 그 왕,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인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주관돼서 자기가 신탁으로부터 해방돼서 행운하고 럭키한 상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죽였던 테베에서 죽였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인 라이오스이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인이 이오카스테가 내 어머니이고. 이 친어머니로부터 네 명의 자식을 낳고 네 명의 자식과 자기와의 관계가 또 어떤 관계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면서 형제이면서 아주 복잡한 그게 이제 희랍비극의 기원이 되는 건데 이오카스테와 라이오스에 관련해서. 거기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알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벗어나고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발견,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운명이 급전해가지고 다시 행운의 상태에서 불행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단순급전이라고 말하기는 여기는 오이디푸스 경우는 아나그노리시스를 동반한 급전인데 비해서 륑케우스 경우는 단순하게 이젠 도망가가지고 아들 낳고 살다가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다나우스가 자신의 딸 휘페르므네스트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구해줬단 말이죠. 거기는 뭐가 동반하지 않았어요? 아나그노리시스라고 하는 발견, 앎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하지 않았죠. 이러면 오이디푸스 경우와는 다르죠. 이런걸 보고 이런 게 단순한 급전이다.

앎을 동반하지 않는 것, 앎을 동반한 급전.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비극적이냐. 비극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바 트라고디아의 정의에 맞느냐. definition에. 트라고디아에 맞느냐 하면 아나그노리시스를 동반한 페리페테이아, 앎을 동반한 급전. 이것이 더 비극적인 거죠. 단순급전보다도. 아나그노리시스가 없는 것보다도. 그런데 아직 그 얘기는 안나오지만 대개 페리페테이아가 일어나려면 앎을 동반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비극의 좋은 비극의 모범이 되려면, 모델이 되려면. 오이디푸스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륑케우스 경우에는 주인공의 운명이 바뀐 것이 하나의 다나우스의 왕의 잔인무도한 처사, 아르고스 시민의 하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그 디케라는 측면에서,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어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앎이 발견이 없이, 그런 점에서 이 차이가 된다는 것, 급전은 있었지만 이 오이디푸스 경우나 륑케우스 경우나 급전은 있었지만은 아나그노리시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아나그노리시스를 동반한 발견을 동반한 앎을 동반

www.artnstudy.com

한 급전이 더 훌륭한 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ww.artnstudy.com